
모 두 발 언

2019. 4. 30.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및 의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혁신금융 민관합동 TF」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1일에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부동산담보와 가계금융 중심의 금융을
미래성장성과 모험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혁신금융은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포함하는 전 금융영역에서
법령, 제도개선은 물론,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관행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정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듭니다.
금융 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금융권의 공감과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관합동 TF는

민과 관이 의견을 공유·조율하는 통로이자,
이행점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구심점(求心點)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혁신금융 추진의 적시성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혁신금융으로의 전환이 더욱 중요합니다.

①인구구조나 생산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었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의 대량생산체제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②대내외적 경제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금융이 경제활력을 위한 모멘텀을
촉발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전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또한 시중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부문의 과열과 함께
잠재적인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및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혁신금융 추진과제 이행점검

지난 달 비전선포 이후 정부와 민간부문은
차질없이 혁신금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① 먼저, 민간 금융권에서 혁신금융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벤처캐피탈 등 그룹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차원의 별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신한 혁신금융추진위원회, KB 혁신금융협의회, 농협 혁신금융추진협의회 등

또한 금융지주회사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농협의 「청년 스마트팜대출」(청년농업인), KB의 「KB셀러론」(온라인쇼핑플랫폼
입점업체), 우리「Cube-X론」(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임대 등) 등

** 신한은 GIB (Global Investment Banking) 부문을 활용한 혁신투자기반 구축,
하나의 금융그룹 최초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하나벤처스) 활용 등

② 민간의 공감과 변화를 기반으로
정부 역시 혁신금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특허청 및 여러 금융기관들과
기술력, 미래성장성이 내재된 지식재산권이
금융의 기초자산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17일 지식재산금융 포럼)

또한, 일괄담보제 도입,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법무부 공동TF를 지속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연대보증 폐지와 연계해 「관련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는
「新보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4.24일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코넥스 상장제도도 개선했습니다.
(4.17일 관련 규정개정 금융위 의결)

성장성이 있다면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상장심사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 신속이전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

4. 향후계획 및 맺음말

앞으로도 혁신금융의 추진동력을 이어나가며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중으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금융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19년도에 4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사업재편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자금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모 추가 확대 계획(+2.5조원)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등
총 4.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 [조선] (만기연장) 1조원, (제작금융 상생보증) 0.1조원, (중소선박 RG) 0.1조원
② [자동차] (만기연장) 1.3조원, (회사채발행 지원) 1조원, (우대보증) 1조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추가확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안에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중소조선사 전용 RG 지원을 위한
무보 출연 400억원 등 수은무보·신기보에 대한 총 2,640억원 추가 출자출연이 포함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야만 달성가능합니다.

우리 TF에는
여러 경제·금융 전문가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이론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에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는 충고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금융부문 역시 혁신적 포용국가에 기여하도록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